

제 1 회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한일비교분석결과 보고서



특정비영리활동법인 言論NPO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수행>

일본 : 世論綜合研究所 한국 : 한국리서치(주)

2013년 5월

<목 차>

| | |
|-------------------------------|----|
| 국민 간 직접교류 경험과 정보원 | 7 |
| 한일 양국 국민의 직접교류의 정도 | |
| 상대국 정보에 대한 관심도와 정보원 | |
| 상대국에 대한 인상 | 12 |
|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상 | |
| 지난 1년간 상대국에 대한 인상의 변화 | |
| 상대국에 대한 인상의 이유 | |
| 상대국에 대한 기초적 이해 | 18 |
| 한일간 기초이해의 현황 | |
| 상대국 사회, 정치제도에 대한 인식 | |
| 상대국의 국민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 |
| 현재의 한일관계와 장래에 대한 인식 | 24 |
| 현재와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 |
| 한일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 | |
|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 |
| 중국과 비교했을 경우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친근감 | |
| 정상회담과 민간외교 | 32 |
| 한일정상회담의 평가와 논의 주제에 관하여 | |

상대국 방문에 대한 인식
민간교류에 관한 한일 여론

한일양국의 역사에 관한 의식 37

역사문제에 관한 한일양국 국민의 인식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세계·아시아와 한일양국의 장래에 관한 양국국민의 의식 41

세계정치를 주도할 국가·지역
2030년 상대국의 영향력 전망
양국의 경제관계
아시아는 하나의 통합경제권이 될 것인가
10년 후의 한반도 전망

영토분쟁과 동아시아의 군사·안보 47

한일 간 영토분쟁에 관하여
군사적 위협과 동아시아 군사분쟁에 관한 인식

자국의 언론보도·인터넷 여론 52

한일 언론보도 및 여론의 자유 인식
자국 언론보도는 객관적이고 공평한가
인터넷상의 여론은 여론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조사개요〉

EAI 와 일본의 공인 NPO 인 言論NPO는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인식조사를 2013 년 3 월부터 4 월까지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나 인식의 현황 및 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양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인식차이를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것에 있다. 또한 본 조사 결과는 두 기관이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5 월에 새롭게 시작할 한일 민간대화(제 1 회 한일미래대화)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 측 조사는 한국전역의 만 19 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3 월 25 일부터 4 월 15 일까지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법(interviewing method)으로 실시되었다. 유효회수표본의 수는 총 1004 개이다. 응답자 최종학력은 고졸이 39.5%, 대학 재학 또는 중퇴자(전문대 포함) 11.6%, 대졸이 33.2%, 대학원졸이 1.4%이다.

일본 측 조사는 일본 전역의 만 18세 이상 남녀(고교재학생은 제외)를 대상으로 지난 3 월 30 일부터 4 월 15 일까지 방문유치회수법(leaving method)으로 실시되었다. 유효회수표본수는 총 1000 개이다. 응답자 최종학력은 고졸이 45.1%, 전문대졸이 20.8%, 대졸이 19.7%, 대학원졸이 2.7%이다.

EAI 와 言論NPO는 일반국민조사와 별도로 한일 전문가(有識者)조사를 4 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한일 양국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한국 측은 EAI 회원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393 명이 응답하였다. 한국 유식자의 직업은 국회의원과 정당인 3.8%, 대학교수와 연구원 54.5%, 언론인 7.6%, 기업체 임직원 6.6% 등이었다.

일본 측도 마찬가지로 과거 言論NPO가 진행한 각종 활동 등에 참가한 바 있는 일본내 유식자와 정치분야 학술단체 회원 등 약 2000 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575 명이 응답하였다. 이들의 직업은 회사 임직원 20.7 %, 미디어

3.3 %, 국가 공무원 3.0 %, 지방 공무원 2.1 %, 정치인·정당 관계자 0.9 %, 학자·연구자 33.6 %, NPO·NGO 관계자 5.9 %, 각종 단체관계자 5.7 %, 학생 5.4 %, 자영업자 3.1 %, 기타 16.3 % 등이었다.

1 . 국민 간 직접교류 경험과 정보원

한일 양국 국민이 직접 교류하는 정도와 상대국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때 이용되는 정보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 인접국으로써 최근들어 상호 간 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민 간의 직접교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채 언론매체를 통하여 양국 모두 상대방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 1 . 한일 양국 국민의 직접교류의 정도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모두 상대국 방문 경험은 20% 안팎이었다. 또한 상대국 지인이 있는 경우는 일본에서는 약 20%, 한국에서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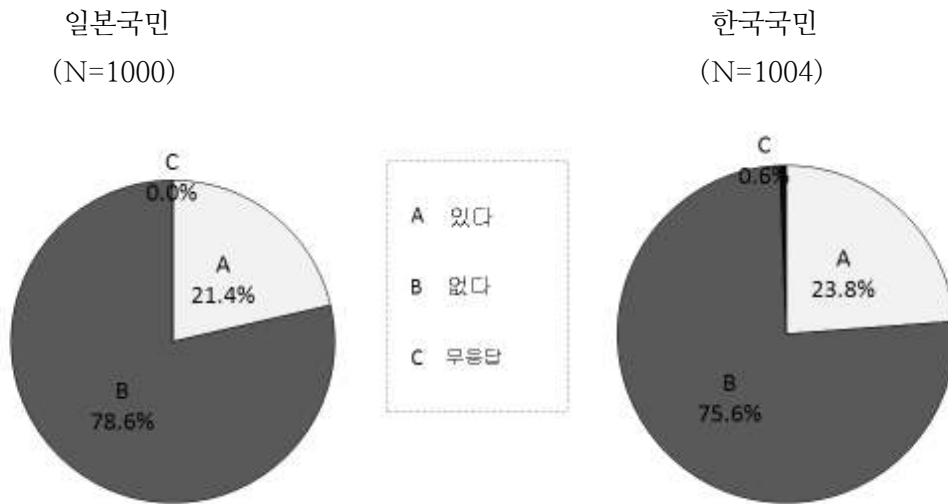
상대국 방문 경험 여부 및 방문 목적

인식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인 교류가 길고 서로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며 일본 국민에게 있어서는 최근 한류 붐으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교류는 활발하지 않았다.

한국 국민 중 일본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23.8%이며, 일본 국민 중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21.4%로 20% 안팎에 머물렀다. 방문목적은 관광 및 여행이 한국 국민의 경우 84.1%, 일본 국민의 경우 89.3%로 압도적이었으며 사업관련 장기출장(1년 이상)이나 유학 등 상대국에 장기체류하는

이들은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공히 1% 정도였다.

【표 1 상대국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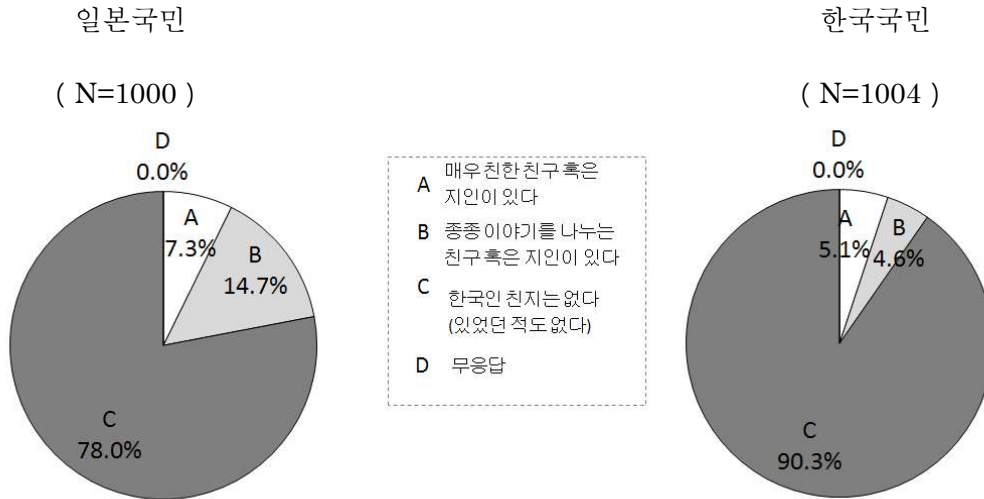


상대국 지인의 유무 여부

한국 국민 중 일본 국민 ‘친한 친구 또는 지인’이나 ‘다소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친구 또는 지인’이 있는 이들은 9.7% 정도였으며 일본 국민 중 해당 응답 비율은 22.0%였다. 양국 국민 약 80~90%가 상대국 지인이 없다(있던 적도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본 조사와는 별개로 양국에서 유식자조사(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식자조사 결과는 국민인식조사와는 달리 한국 국민은 82.7% 그리고 일본 국민은 68.3%가 상대국에 방문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국 국민 혹은 일본 국민 ‘친한 친구 또는 지인’ 혹은 ‘다소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친구 또는 지인’이 있다고 답한 한국 국민의 비율은 61.0%, 일본 국민의 비율은 7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높은 비율의 직접 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상대국 지인 여부】



1 - 2 . 상대국 정보에 대한 관심도와 정보원

양국 국민 모두 상대국에 관한 정보원은 90%가 자국의 언론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TV 뉴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 밖에 한국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가족, 지인을 통한 경험'을 선택한 이들이 각각 30% 안팎에 이르렀으며, 일본에서는 '한국 TV 드라마 등'을 정보원으로 선택한 이들이 20% 안팎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은 '자국 언론을 통해 상대국을 아는 정도'로 한국 국민의 응답비율은 80.8%로 80%를 상회하였으며 일본 국민의 응답비율 역시 70.2%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상대국 언론이나 인터넷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한국 국민의 응답비율은 13.2%로 10% 내외의 결과를 보였으며 일본 국민의 응답비율은 20.8%로 20% 안팎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로 인하여 상대국에 대해 아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원으로써 양국 국민 모두 ‘자국 뉴스 언론’을 선택하였으며 한국 국민은 94.0%, 일본 국민은 91.2%의 응답비율로 이를 정보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뉴스’를 선택한 이들 중 ‘TV’를 선택한 한국 국민의 비율은 74.6%, 일본 국민의 비율이 82.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양국 국민 모두 상대국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TV 뉴스의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들도 20%나 있으며 특히 30대 이하에서는 40%대의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한국의 경우 일본 관련 정보원으로써 ‘한국 TV 드라마, 교육방송, 영화’를 선택한 이들의 비율이 37.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더해 ‘가족이나 친구, 지인의 경험’을 꼽은 응답비율 역시 30.3%로 30%대를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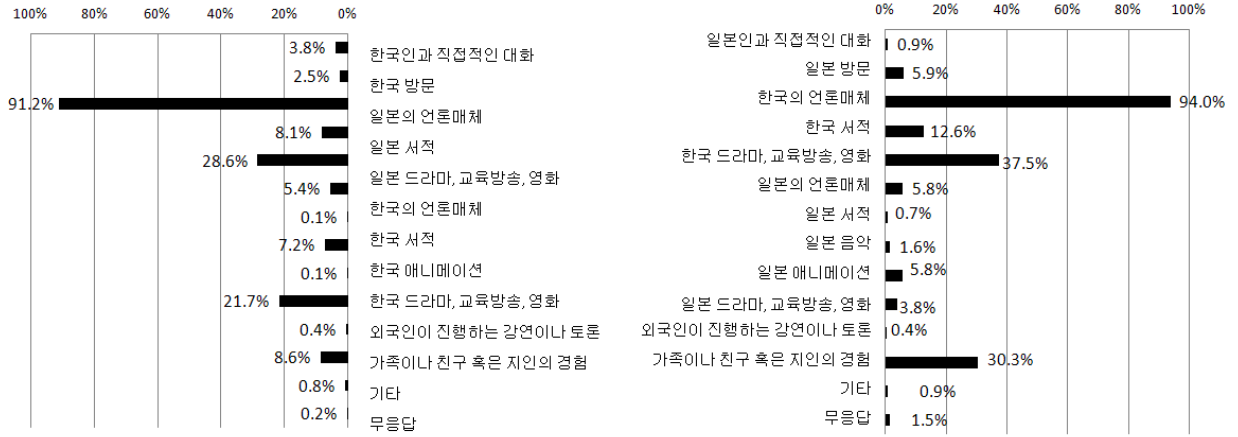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일본 국민의 경우 21.7%가 한국 관련 정보원으로써 ‘한국 TV 드라마, 교육방송, 영화’를 선택하였으며 최근 한류 붐에 의한 한국 제작 콘텐츠가 한국 인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식자의 경우 상대국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원이 보다 깊고 다양하였으며 ‘상대국 문화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한국 국민은 39.9%, 일본 국민은 48.3%이었다. 또 ‘상대국 언론 또는 인터넷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한국의 경우 36.4%, 일본의 경우 45.9%로 상대국에 대한 정보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표출하였다.

【표 3 상대국에 대한 정보원】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04)



2 . 상대국에 대한 인상

2 - 1 .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상

일본에 대한 인상을 '좋다'고 한 한국 국민의 비율은 10%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한국에 대한 인상을 '좋다'고 응답한 일본 국민의 비율은 30%였다. 반대로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한국 국민의 비율은 76.6%로 80%대에 근접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다'고 답한 일본 국민의 비율은 약 40%대였다.

우선 상대국에 대한 인상에 관하여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한국 국민의 비율은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를 포함하여 모두 12.2%에 였으며 일본 국민의 해당 응답비율은 31.1%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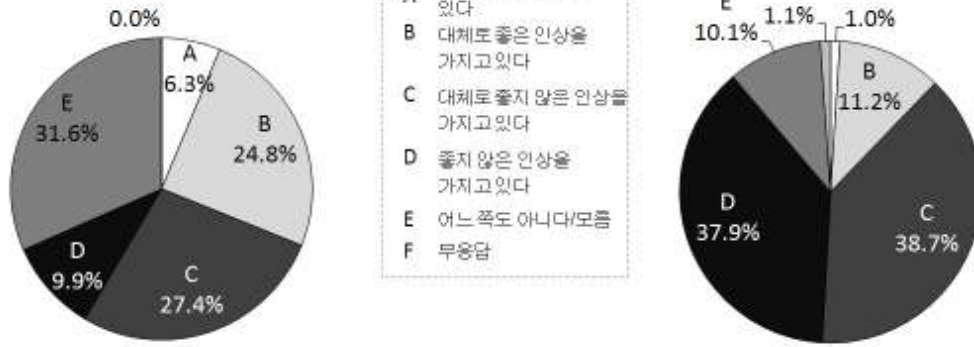
상대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와 합치면 한국 국민의 76.6%, 일본 국민은 37.3%이었다. 한국 국민의 약 80%가 일본 국민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상대국 방문 경험이나 직접 교류가 일반 국민보다 비교적 높았던 유식자의 경우, 한국 유식자의 59.5%, 일본 유식자의 53.4%가 상대국에 대해 '좋은' 인상('대체로 좋은 인상'도 포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일반 국민만큼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표 4 상대국에 대한 인상】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04)



2 - 2 . 지난 1년간 상대국에 대한 인상의 변화

양국민의 40%가 지난 1년간 상대국에 대한 인상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상대국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대다수가 '비슷하다(특별히 변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각각 49.7%와 52.9%였으나 '대체로 나빠졌다' 혹은 '상당히 나빠졌다'고 응답한 한국 국민의 응답비율은 46.7%였고 일본 국민의 응답비율은 39.6%에 달했다.

【표 5 상대국에 대한 인상의 변화】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04)



2 - 3 . 상대국에 대한 인상의 이유

한국 국민이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이유로 '영토분쟁', '역사인식문제'가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냄으로써 한국 국민은 대체로 '과거'로부터 '현재'의 일본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국민의 경우 '언행이 감정적이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등, 한국 국민의 행동에 반발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대로 좋은 인상을 가진 이유에 대해 한국 국민은 '일본 국민은 친절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일본 국민의 성격을 본 이들이 많았으며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음악 등' 한류 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이들이 많았다.

이러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원인은 무엇일까. 상대국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한국 국민의 경우 ‘독도문제 때문에’가 84.5%, ‘한국을 침탈한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가 77.0%로 영토 분쟁과 역사인식 문제를 선택한 이들의 비율이 80%대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유식자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다. 이에 더해 유식자 조사의 경우 ‘일본의 우경화 때문에’라고 한 응답도 28.3%로 30%대 가까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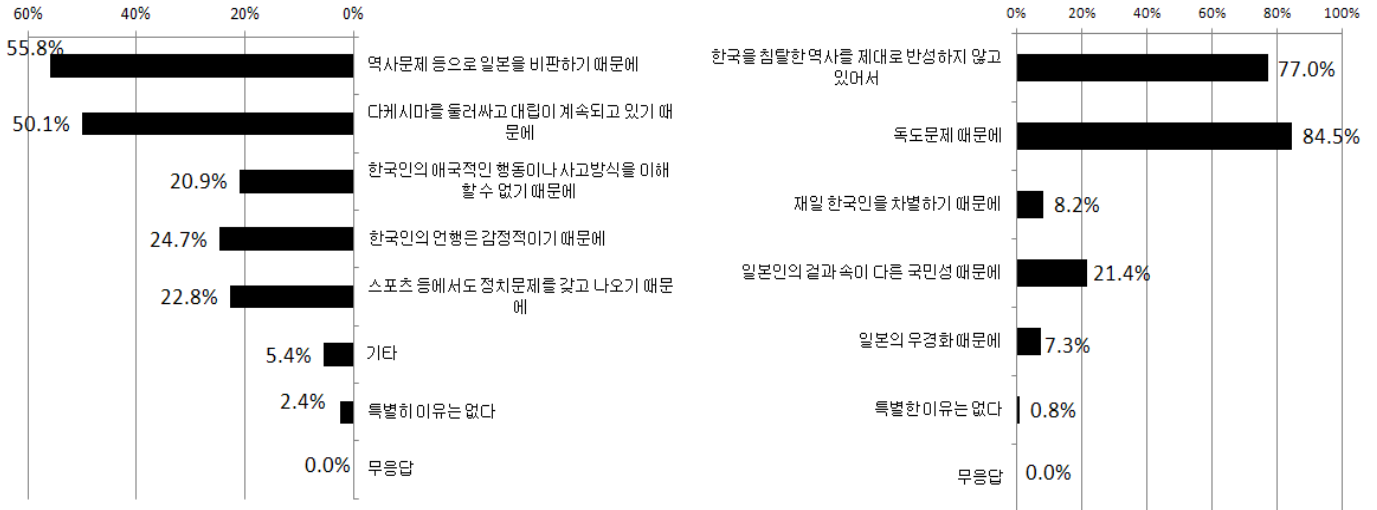
일본 국민의 경우 ‘역사문제 등으로 일본을 비판하니까’가 55.8%였으며 ‘다케시마 둘러싸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가 50.1%로 이 두 항목을 고른 일본 국민이 과반수였다. 반면 ‘한국 국민의 언행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24.7%), ‘스포츠에 정치문제를 연관짓기 때문에’(22.8%), ‘한국 국민의 애국적인 언행이나 사고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20.9%)라고 답한 일본 국민의 비율을 산술적으로 모두 합하면 60%를 넘는다.

일본 유식자도 한국 국민의 행동이 안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원인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으며 실제 ‘한국 국민의 언행이 감정적이기 때문에’가 46.2%로써 절반 가까이 되었다.

【표6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이유】

일본국민 (N=373)

한국국민 (N=770)



반대로 상대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우선 한국 국민의 경우 ‘일본 국민은 친절하고 성실하기 때문에’라고 답한 이들이 59.8%로 60%대에 근접하면서 가장 많았고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이기 때문에’가 46.7%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의 응답비율은 16.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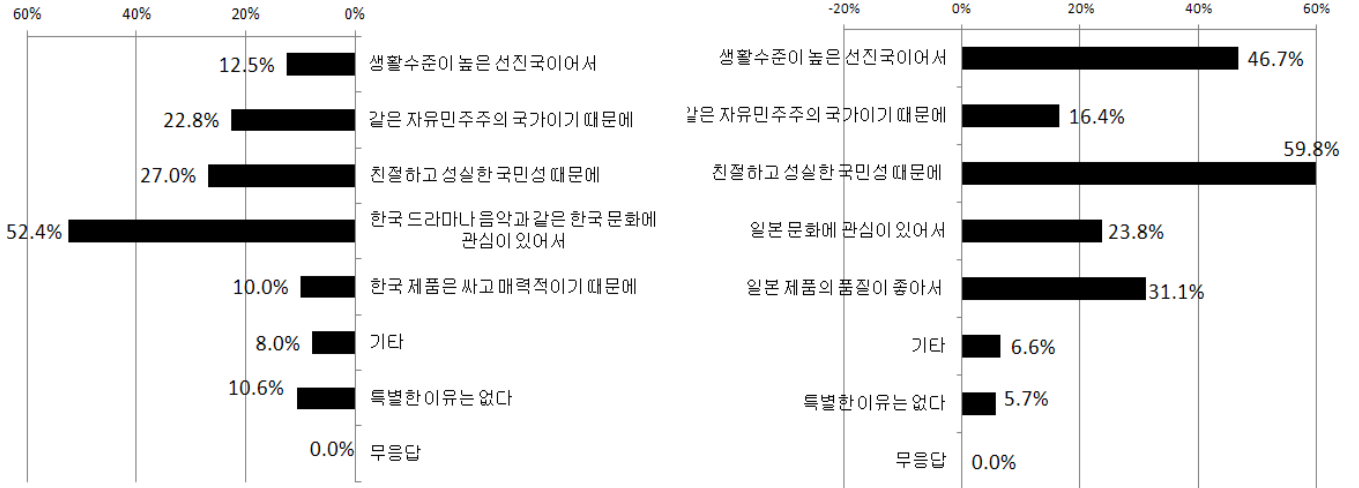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일본 국민은 ‘한국 드라마나 음악, 문화 등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이 52.4%로 절반을 넘었으며 ‘한국 국민은 성실하고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일하기 때문에’의 응답비율이 27.0%,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의 응답비율이 22.8%로 나타났다.

한국 유식자조사의 경우 ‘일본 국민은 친절하고 성실하기 때문에’를 꼽은 비율이 70%대(69.7%) 가까이 되었으며 일본 유식자조사의 경우 ‘한국 국민은 성실하고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일하기 때문에’를 꼽은 비율이 40.4%로 가장 높았다.

【표 7 좋은 인상을 갖는 이유】

일본국민(N=311)

한국국민(N=122)



3 . 상대국에 대한 기초적 이해

3 - 1 . 한일 간 기초이해의 현황

한국 국민의 경우 '독도(다케시마)문제'나 '종군위안부문제'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영토분쟁, 역사인식문제 등 2 개의 문제가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기초적 이해관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한편 일본 국민의 경우 '상대국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 중 '한국요리'나 '한국드라마, K-POP' 등 한국문화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또 양국 역사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이해의 경우 한국 국민은 절반을 넘는 이들이 세계 2 차대전, 전쟁시기 관련 사건 등을 많이 꼽은 반면, 일본 국민은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국 국민이 알고 있는 정치가의 경우 한국 국민은 아베 신조 현 일본 총리를 그리고 일본 국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많았다.

'일본하면 무엇이 연상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물어본 결과, 한국 국민의 경우 '독도문제'가 84.4%, '종군위안부문제'가 61.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 일본요리, 고품질의 제품, 후지산, 사쿠라, 만화-애니메이션 등을 선택한 응답비율은 각기 1%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일본 국민의 경우 59.1%가 '한국요리'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또

‘한국드라마, K-POP’을 선택한 응답비율도 47.2%에 달함으로써 한국의 문화관련 사항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작년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대립이 있었던 바, ‘다케시마문제’를 선택한 이들의 비율이 56.7%로 높았으며, ‘반일감정, 반일시위’의 응답비율이 32.0%로 나타났다.

‘알고 계시는 한국-일본 역사적 사건’을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물어본 결과, 한국 국민은 ‘임진왜란’(80.6%),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 (74.8%), ‘태평양전쟁’ (55.4%), ‘일한강제병합’(49.9%) 등을 선택함으로써 제2차세계대전 이전 혹은 전쟁 중의 시기의 사건을 많이들 꼽고 있었다.

한편 일본 국민은 ‘여성대통령의 탄생’이 72.4%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올림픽’이 71.1%, ‘일한월드컵’이 70.0%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일본 국민은 한국 강제병합과 같은 역사적 사건보다 근래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 ‘알고 계시는 한국 및 일본의 정치가’의 경우 한국 국민은 ‘아베 신조’ 현 일본 총리를 66.2%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인해 한국의 비난을 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43.7% 있었다. 이 두 정치인을 제외하고 다른 일본 정치인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0%대 이하였으며, 전부 모른다고 답한 비율도 22.3%나 되었다.

일본 국민의 75.7%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답하였으며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65.5%) 그리고 세번째로 ‘박근혜’ 대통령(51.9%)이라고 답했다.

3 - 2 . 상대국 사회, 정치제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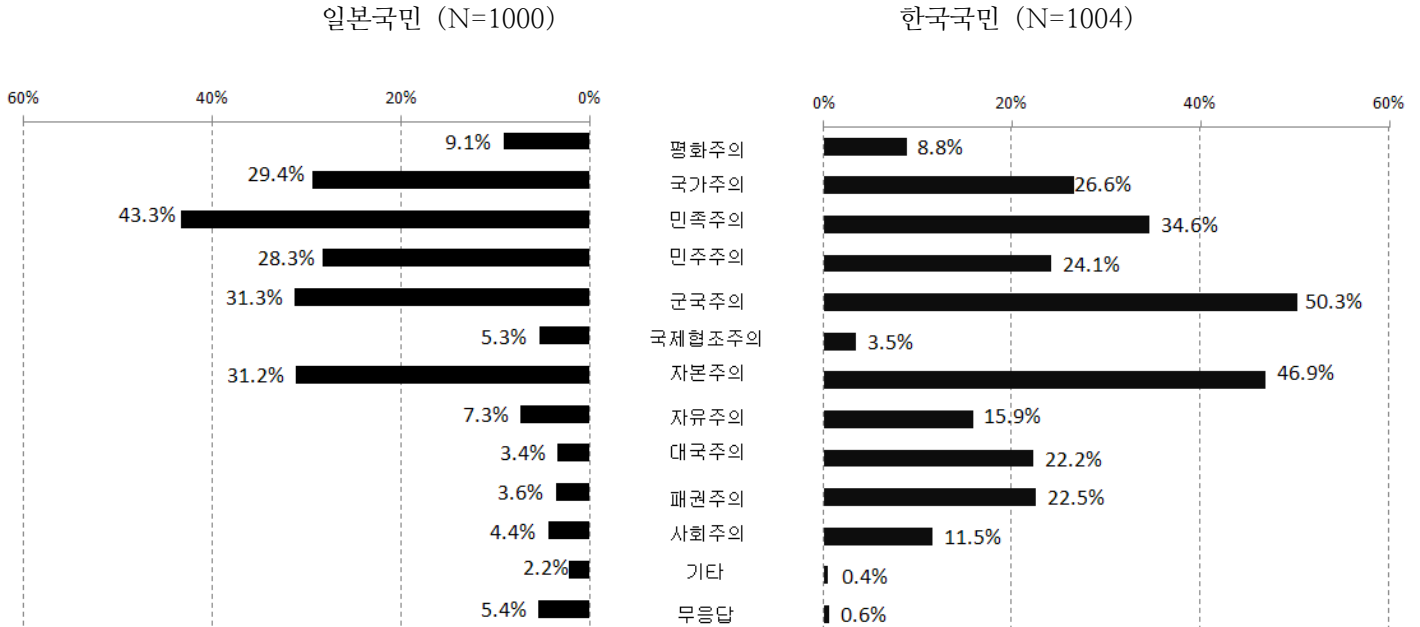
한국 국민 중 현재의 일본을 '군국주의'로 본 이들이 50.3%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일본을 '평화주의'나 '국제협조주의'로 본 한국 국민의 응답비율은 각각 10%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본 국민은 약 40%대가 현재의 한국을 '민족주의'로 보았다. '군국주의'도 30%를 넘었다.

상대국의 사회 및 정치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한국 국민은 현재의 일본을 '군국주의'로 보는 응답비율이 50.3%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자본주의'가 46.9%, '민족주의'가 34.6%였다. 일본이 전후 세계에 주장해온 '평화주의'는 8.8%, '국제협조주의'는 3.5%로 10%에도 달하지 못하였고 '민주주의'에 대한 응답비율로 24.1%에 불과했다.

한편 일본 국민은 '한국의 사회, 정치제도의 유형'에 관하여 '민족주의'가 4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군국주의' (31.3%), '자본주의'(31.2%), '국가주의'(29.4%) 순이었다. 한국을 '민주주의'로 생각하는 일본 국민의 비율은 28.3%에 불과했다.

일본 유식자조사의 경우 70%대(70.3%)가 한국을 '민족주의'로 보았으며 응답비율 역시 가장 높았다.

【표 8 상대국의 사회와 정치제도 인식】



3 - 3 . 상대국의 국민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국 국민은 일본 국민의 국민성을 ‘근면하고, 친절하며, 창조적’이면서도 ‘이기적이며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았다. 반면, 일본 국민은 한국 국민의 국민성에 대하여 확실히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한국 국민을 ‘근면하고 완고’하지만 ‘이기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며 비협조적’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았다.

한일 양국 국민인식조사 중 ‘친절/오만’, ‘근면/게으름’, ‘평화적/호전적’,

‘유연성/완고함’, ‘신뢰할 수 있다/없다’, ‘정직/부정직’, ‘창조적/모방적’, ‘협조적/비협조적’, ‘이타주의/이기주의’, ‘집단주의/개인주의’ 등 10개 항목을 통해 상대국의 국민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 국민은 일본 국민의 국민성에 대하여 78.5%의 응답비율로 ‘근면하다’를 선택하였고 이어서 ‘친절함’이 69.2%, ‘이기주의’가 55.2%이었다. 이 외에 한국 국민의 30% 이상이 선택한 답변으로는 ‘창조적’(43.9%), ‘신뢰할 수 없다’(39.5%), ‘정직하고 성실하다’(35.2%), ‘비협조적’(34.8%), ‘완고함’(33.9%) 등이 있었다.

한편 일본 국민의 경우 전 10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 국민의 국민성에 대해 확실히 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국 국민의 국민성과 관련하여 ‘근면하다’는 인식이 57.7%(‘대체로 근면하다’도 포함)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30% 이상의 일본 국민이 선택한 응답은 ‘완고함’(47.6%)이 있었으며, ‘이기주의’(37.0%), ‘집단주의’(34.3%), ‘비협조적’(32.0%) 등이 있었다.

4 . 현재의 한일관계와 장래에 대한 인식

한일관계는 2012년 말 독도(다케시마)문제의 격화와 함께 급격히 악화되었다. 본 인식조사에서는 현재의 한일관계와 그 미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4 - 1 . 현재와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현재의 한일관계를 '나쁘다'고 보고 있는 한국 국민의 비율은 67.4%로 70%대를 근접하였으며, 일본 국민의 비율은 55.1%로 과반수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한국 국민의 약 10 명 중 5 명 그리고 일본 국민의 약 10 명중 7 명이 지난 1 년간 '양국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앞으로의 한일관계 역시 지금과 같은 상태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한 한국 국민의 비율은 60%대였고 일본 국민의 비율은 30%대 내외를 나타내었으며 양국 중 한국 국민의 30% 가량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대체로 한국 측이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대하여 비관적인 관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현재의 양국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현재의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좋다'('매우 좋다' 및 '대체로 좋다'의 합계)고 보는 한국 국민의 비율은 3.4%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 국민 역시 '좋다'고 답한 비율은 11.3%에 머물렀으며 현재 양국관계를 '좋다'고 본 이들은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소수에

불과하였다.

반대로 한일관계를 ‘매우 나쁘다’ 또는 ‘대체로 나쁘다’고 인식한 한국 국민은 67.4%로 70% 가까운 응답비율을 나타냈으며 일본 국민도 55.1%로 절반을 넘는 비율이 현재의 한일관계를 ‘나쁘다’고 보아 양국 국민 모두 현재의 한일관계를 심각하게 바라보았다.

이러한 양국관계에 관한 비관적인 인식은 양국 유식자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유식자의 경우 ‘상당히 나쁘다’ 혹은 ‘대체로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8%이었으며, 일본 유식자의 경우 해당 응답비율은 50.1%였다.

【표 9 현재의 한일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04)



지난 1년간 양국관계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였는가

이어서 ‘지난 1년간 한일관계는 변화하였는가’는 질문에 대하여 ‘나빠졌다’(‘상당히 나빠졌다’ 및 ‘대체로 나빠졌다’의 합계)고 응답한 한국 국민의 비율은 약 53.9%이었다.

마찬가지로 일본 국민의 약 66.3%로 비율로 ‘나빠졌다’고 보아 70%대 이상이 나빠졌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지난 1년 간의 양국관계】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04)



앞으로의 양국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양국관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았다. 한국 국민의 59.5%, 일본 국민의 34.6%가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대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인식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악화된 한일관계가 앞으로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양국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어 있었다. 이에 더해 한일관계가 앞으로 보다 ‘나빠질 것이다’(‘대체로 나빠질 것이다’ 포함)고 말한 한국 국민의 응답비율은 26.6%, 일본 국민의 응답비율은 18.2%이었다. ‘좋아질 것이다’(‘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포함)를 선택한 한국 국민의 응답비율은 14.0%, 일본 국민의 응답비율은 23.1%로 나타남으로써 대체로 한국

국민의 비관적인 관점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유식자의 경우, 한국 유식자 35.2%가 ‘좋아질 것이다’(‘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포함)를 선택하였다. 일본 유식자도 ‘좋아질 것이다’를 선택한 이들이 42.4%로 국민인식과는 달리 보다 긍정적인 한일관계를 전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 2 . 한일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

앞으로의 한일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문제로 양국 국민 공히 ‘독도(다케시마)문제’를 선택하였다(각각 80%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으며 한국 국민은 ‘일본의 역사인식, 역사교육’을 60% 이상이 선택하였고 일본 국민은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을 절반이 선택하였다.

양국 국민이 생각하는 한일관계 발전의 방해요소는 무엇일까. 양국 국민 모두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독도(다케시마)문제’였으며 한국 국민의 94.6%, 일본 국민의 83.7%가 이를 선택함으로써 압도적인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한국 국민들에게 두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항목은 ‘일본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61.1%)이었으며 이어서 ‘일본 정치가의 반한감정을 선동하는 발언’이 31.1%, ‘일본국민의 반한감정’이 24.7%로 그 다음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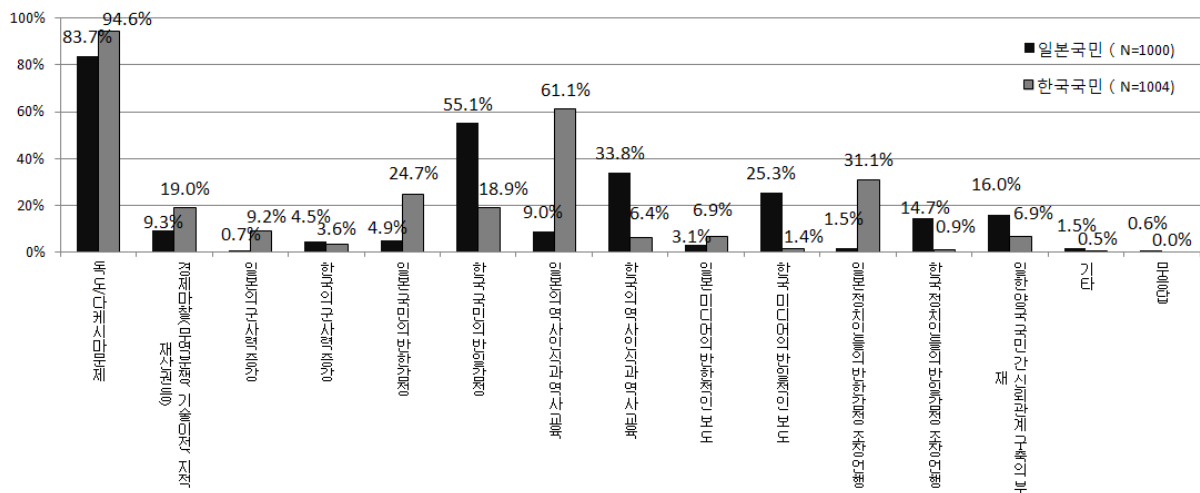
일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원인은 ‘한국국민의 반일감정’이 55.1%로 절반 내외였으며 이어서 ‘한국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이 33.8%, ‘한국언론의 반일적인

보도'가 25.3%로 그 다음을 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유식자 모두 양국관계를 방해하는 문제로서 '독도(다케시마)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 유식자들은 '일본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과 '일본 정치가의 반한감정을 선동하는 발언'을 많이들 꼽았으며 일본 유식자들은 '한국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과 한국국민의 반일감정'을 많이들 꼽았다.

【표 11 양국 국민이 생각하는 한일관계 발전의 방해요소】



4 - 3 .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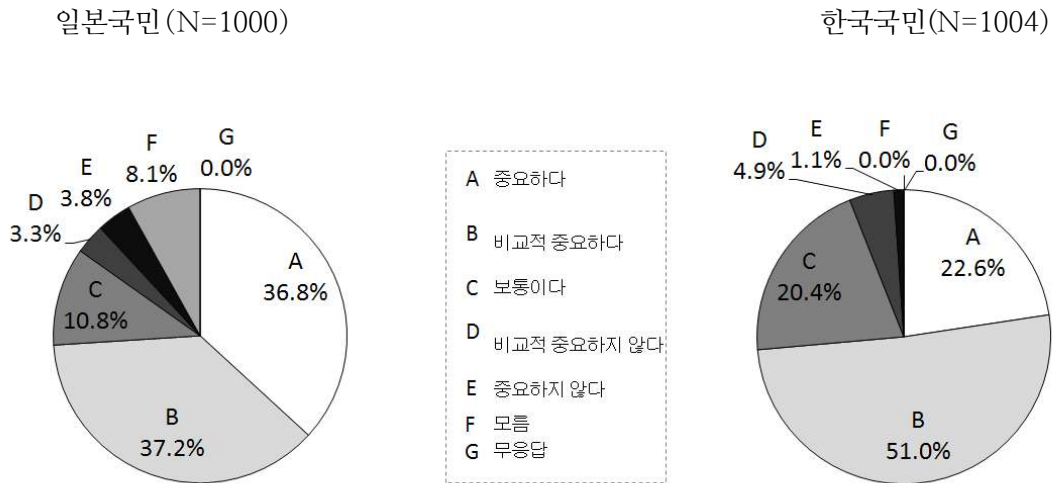
그러나 한일관계를 중요하다고 보는 국민은 각각 70%대를 넘었으며 양국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하였다.

현재의 한일관계를 ‘나쁘다’고 보는 양국 국민은 각각 절반을 넘었고 앞으로의 양국관계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관점이 많았으나 양국 국민의 70% 이상이 한일관계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일관계를 중요하다고 보는 한국 국민의 비율은 73.6% (‘중요하다’ 및 ‘대체로 중요하다’의 합계), 일본 국민의 해당 비율은 74.0%로 양국 국민 모두 70%대로 조사되었다.

유식자의 경우 한국 국민은 90.3%, 일본 국민은 81.2%로 압도적인 수준에 있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를 포함하더라도 한국 국민의 6.0%, 일본 국민의 7.1%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표 12 한일관계의 중요성】



4 - 4 . 중국과 비교했을 경우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친근감

이러한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관해 대중관계와 비교하는 경우 대중관계가 '대한·대일' 관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양국을 막론하고 가장 많았으나 특히 한국 국민은 일본 국민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친근감'의 경우 한국 국민은 '일본'보다 '중국'에 대해 더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은 '중국'보다도 '한국'에 대해 더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높음에 따라 두 나라 국민들 간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본 조사에서는 한일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해 느끼는 중요성에 더불어 동아시아의 대국이자 한일 양국과 깊은 역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의 중요성과 친근감을 비교해보았다.

한일관계와 대중관계의 중요성

우선 양국국민인식조사에서 자국의 장래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한일(일한)관계와 중일(일중)관계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알아보았다.

한국 국민의 55.0%, 일본 국민의 49.6%, 즉 양국 국민의 절반 정도가 '둘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중관계가 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서 한국 국민의 응답비율은 35.8% 일본 국민의 응답비율은 20.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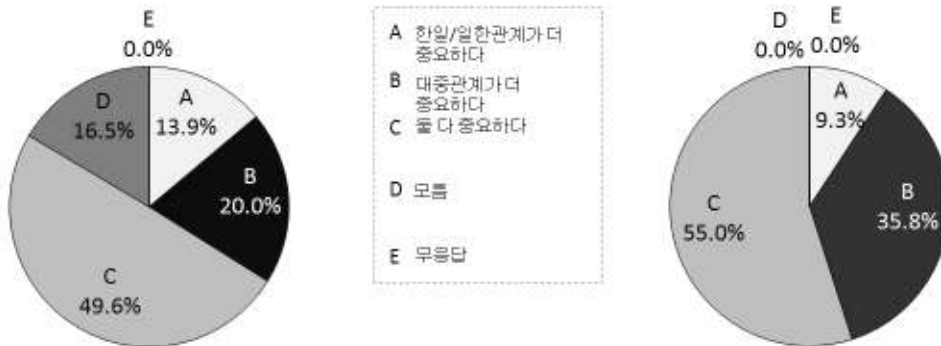
그리고 한국 국민은 '한일관계가 보다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9.3%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던 반면 일본 국민은 '한일관계가 보다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13.9%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일 유식자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다. 한국 유식자 조사에서 대중관계가 한일관계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유식자는 45.5%로 절반 가까이 있었다. 일본 유식자의 경우 대중관계가 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31.1%에 이르렀다.

【표 13 한일(일한)관계와 대중관계의 중요성】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04)



한국/일본, 중국에 대한 친근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 대한 친근감의 비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여기서도 양국 국민 간 친근감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한국은 ‘일본에 보다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13.5%에 불과하였으며 ‘중국에 보다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36.2%로 30%대를 넘었다. 한국에서는 대중관계를 대일관계보다 중시하는 시각들이 많은 것에 더해 중국에 친근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일본에 친근감을 느끼는 국민들보다 세배 많았다.

단, 한국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어느 쪽에도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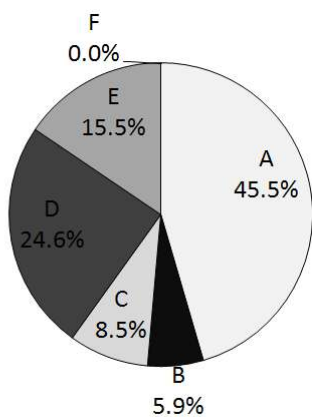
이들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들이 40% 가까이 있었다는 점은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일본 국민의 경우 ‘한국에 보다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45.5%로 절반 가까이 있었으나 ‘중국에 보다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5.9%로 10%대 이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한일 유식자 조사의 경우 다소 달라진다. 한국 유식자는 ‘일본에 보다 친근감을 느낀다’가 27.0%로 ‘중국에 보다 친근감을 느낀다’의 18.6%과 비교했을 때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일본 유식자도 ‘한국에 보다 친근감을 느낀다’고 40.9%가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중국에 보다 친근감을 느낀다’고 11.1%가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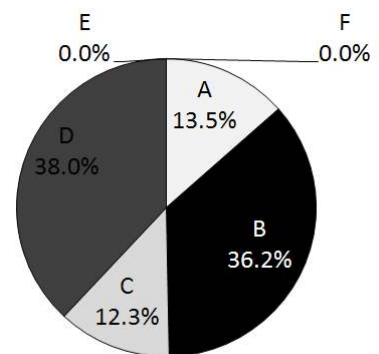
【표 14 상대국과 중국에 대한 친근감】

일본국민 (N=1000)



- A 상대국에 더욱 친근감을 느낀다
- B 중국에 더욱 친근감을 느낀다
- C 두 나라 모두에 동일한 친근감을 느낀다
- D 두 나라 모두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 E 모름
- F 무응답

한국국민 (N=1004)



5 . 정상회담과 민간외교

한일양국은 근접국으로써 최근 정부 및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여기서는 우선 2004년 이후 한일 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실시해온 정상외교(셔틀외교)의 평가를 의논하기 위한 주제 그리고 민간교류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5 - 1 . 한일정상회담의 평가와 논의 주제에 관하여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양국 국민의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있었다. 의논해주길 원하는 주제로 가장 많았던 응답은 '독도(다케시마)문제'였다. 일본 국민은 40% 가까이가 한반도의 '북한 핵문제'를 선택한 반면, 한국 국민은 '북한의 핵문제' (31.3%) 보다도 '역사문제, 위안부문제'(40.9%)를 보다 많이 선택하였다.

한국과 일본 간 진행되어온 정상회담(셔틀외교)의 필요성에 관하여서는 한국 국민의 응답비율이 84.9%, 일본 국민의 응답비율이 70.2%로 양국 국민 모두 70% 이상의 비율로 '필요하다' 혹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15 정상외교의 필요성】

일본국민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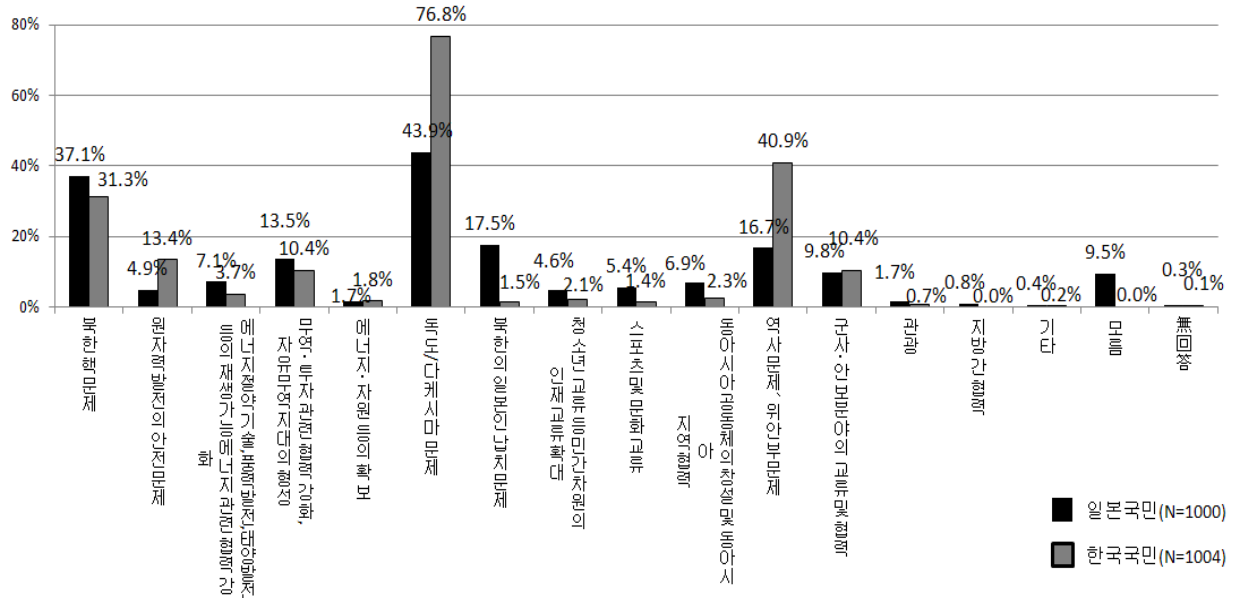
한국국민 (N=1004)



정상회담에서 의논해야 할 과제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한국 국민의 76.8%, 일본 국민의 43.9%가 ‘독도(다케시마)문제’를 선택하였고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리고 일본 국민은 이 밖에 현재 시급한 이슈라 할 수 있는 북한 정세에 따른 ‘북한의 핵문제’를 선택한 이들이 37.1%의 비율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일본 국민 납치문제’가 17.5%의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의 경우 ‘북한 핵문제’ (31.3%)보다도 ‘역사문제 및 위안부문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40.9%로 40%대를 넘게 나타남으로써 ‘역사인식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다.

【표 16 정상회담에서 의논해야 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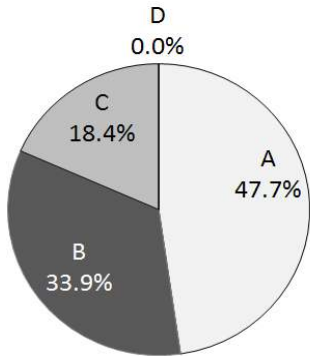
5 - 2 . 상대국 방문에 대한 인식

양국 국민의 약 절반이 상대국에 '가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가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양국 국민 모두 약 30%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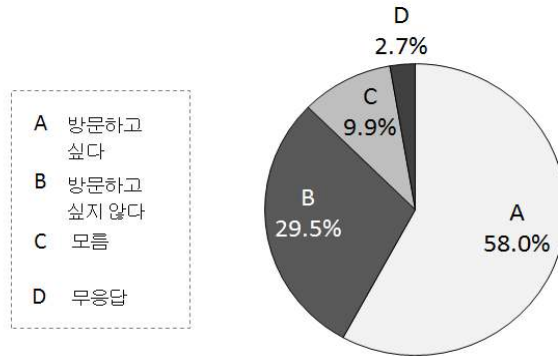
우선 상대국에 '가고싶다'고 응답한 한국 국민의 비율은 58.0%였고 일본 국민의 비율은 47.7%로 양국 국민의 절반 가량이 상대국 방문에 흥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가고 싶지 않다'를 선택한 이들도 한국 국민의 비율은 29.5% 그리고 일본 국민의 비율은 33.9%였다.

【표 17 상대국에 방문하고 싶은가】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04)



일본에 ‘가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한국 국민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후쿠시마발전소에 의한 방사능오염’(40.9%)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일본이 싫어서’가 29.4%, ‘한국과 일본 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를 꼽은 비율 역시 27.7%로 30%대에 근접하였다.

그리고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일본 국민의 경우, ‘방문할 정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비율이 56.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반일감정이 강하기 때문에’의 응답비율이 42.8%로 그 뒤를 이었다.

5 - 3 . 민간교류에 관한 한일 여론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70%대 이상이 '민간수준에서의 교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민간교류를 통해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교류', '민간기업 인재교류', '유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민간교류의 중요성에 관해 알아본 질문에서는 한일 민간교류에 대하여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체로 중요하다'를 포함할 경우 한국 국민의 응답비율은 75.2%였고 일본 국민의 응답비율은 74.7%로 공히 70%대 이상의 응답비율을 나타냈으며 민간교류의 중요성에 관한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민간교류를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모두 '문화적 교류'(각각 34.0%, 43.5%)로 가장 많았다. 한국 국민의 응답비율은, '민간기업 간 인재교류'가 37.7%, '언론매체 간 교류'가 35.8%, '학자, 연구원 간 교류'가 27.8%로 그 다음을 이었다. 일본 국민의 응답비율은 '유학생의 유치'가 22.7%, '언론매체 간 교류'가 22.2%로 그 뒤를 이었다.

6 . 한일양국의 역사에 관한 의식

여기서는 독도(다케시마)문제와 나란히 한일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역사인식문제’에 관한 양국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6 - 1 . 역사문제에 관한 한일양국 국민의 인식

한국에서는 ‘역사인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양국관계는 발전하지 않는다’는, 즉 양국관계 발전에 있어 역사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40%대를 넘었다. 역사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일본 국민은 한국 국민의 역사문제에 대한 ‘과격한 반일행동’이나 ‘한국의 반일교육이나 교과서문제’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았으나 한국 국민은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가 72.4%로 압도적인 응답비율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침략전쟁’이나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역사문제의 해결과 한일관계

한국에서는 ‘역사인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국관계는 발전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어디까지나 역사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40%대를 상회하였다. ‘양국관계가 발전하면서 역사인식문제도 차근차근 해결된다’는 응답비율이 29.2%로 30%에 근접했다.

일본의 경우 ‘양국관계가 발전해도 역사인식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 이들의 비율이 32.1%로 가장 높았다. 단 ‘역사인식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국관계는 발전하지 않는다’가 25.9%, ‘양국관계가 발전하면서 역사인식문제도 차근차근 해결된다’가 23.6%로 나타남에 따라 이 세 가지 인식이 각각 30%대 정도의 응답비율을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관점이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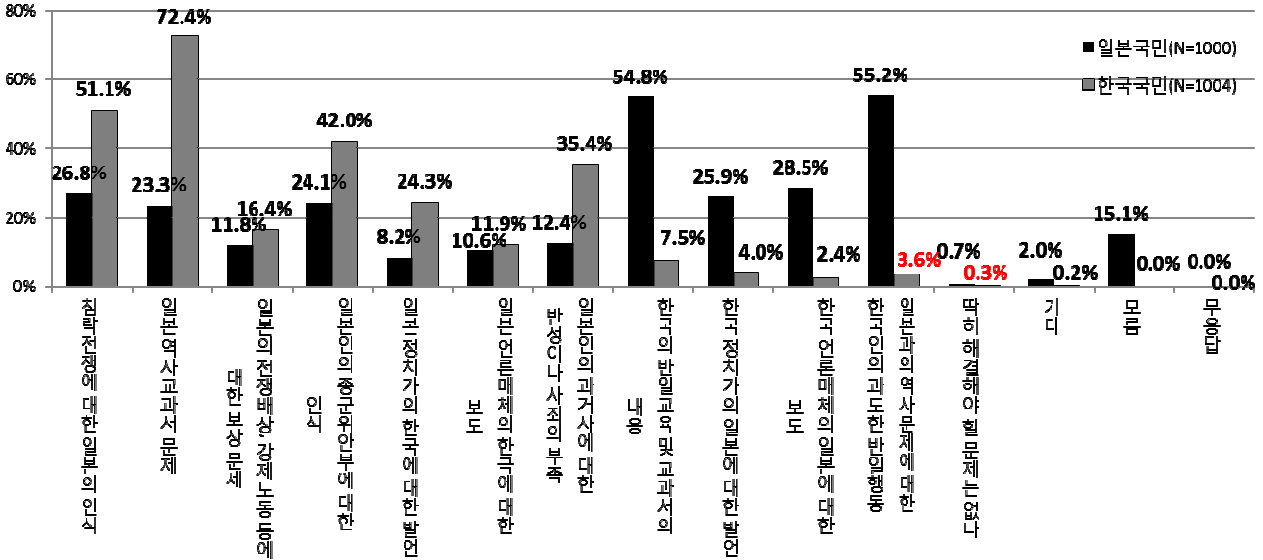
한일 양국이 해결해야 할 역사문제의 과제

이어서 한일 간에서 해결해야 할 역사문제의 과제와 관련하여 한국 측에서는 일본 측의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사죄부족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일본 측에서는 한국 국민의 역사문제에 대한 과격한 반일행동이나 한국의 반일교육, 교과서문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국민의 경우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를 꼽는 응답비율이 72.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침략전쟁에 대한 일본의 인식’ (51.1%), ‘일본 국민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인식’ (42.0%), 이에 더해 ‘과거 역사에 관한 반성이나 사죄의 부족’ (35.4%) 등 과거 전쟁 당시 일본측 행위에 관한 일본 국민의 인식을 과제로 선택하였다.

일본 국민의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일본과의 역사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과격한 반일행동’을 꼽는 비율이 55.2%이었으며 ‘한국의 반일교육이나 교과서의 내용’이 54.8%의 응답비율을 나타냈으나 ‘침략전쟁에 관한 일본의 인식’ (26.8%), ‘일본 국민의 종군위안부에 관한 인식’ (24.1%) 등, 자국의 인식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서로의 관점에서 일부 차이를 보였다.

【표18 양국 역사문제 중 해결해야할 과제】



6 - 2 .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하여 한국 국민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참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60% 이상에 달했으나, 일본 국민은 ‘참배해도 상관없다’,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상관없다’을 더해 약 70%대 이상이 참배를 용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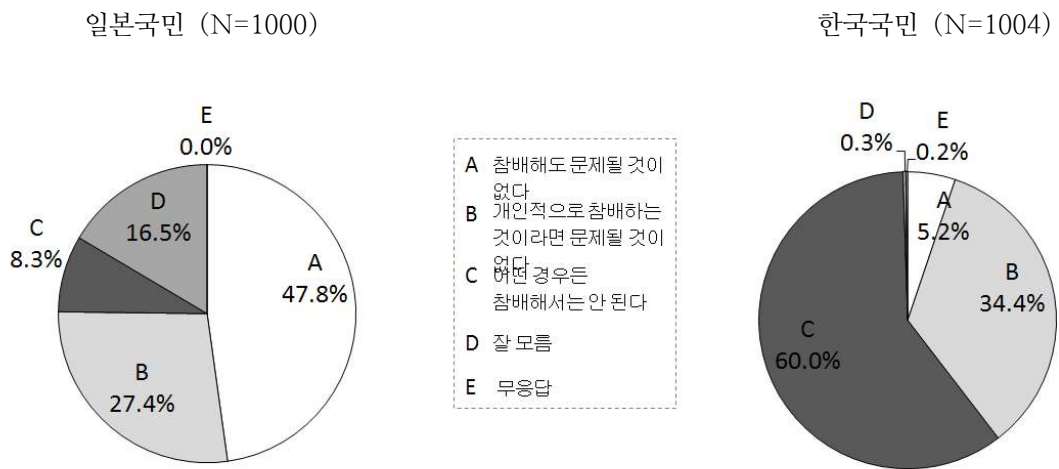
야소 부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일외교장관급회담을 연기하는 등 현재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는 한일관계에 있어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시비와 관련하여 양국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우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하여 일본 국민은 ‘참배해도 상관없다’고 용인한 이들이 47.8%로 약 절반 정도였다. 이에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상관없다’고 답한 비율 27.4%를 합치면 해당 응답비율은 75.2%로 70%대 이상의 일본 국민들이 참배를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 국민의 60.0%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상관없이 참배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함으로써 한일 간 국민인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 국민의 경우 ‘참배해도 상관없다’가 5.2%,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상관없다’가 34.4%로 이 둘을 합쳐도 용인하는 의견의 비율은 40%대에 미치지 않았다.

【표 19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7 . 세계 · 아시아와 한일양국의 장래에 관한 의식

이번 조사에서는 세계나 아시아의 장래에 대해 그리고 상대국의 장래나 영향력에 대한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7 - 1 . 세계정치를 주도할 국가 · 지역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 모두 앞으로 세계정치를 주도할 국가는 '미국'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의 세계정치를 주도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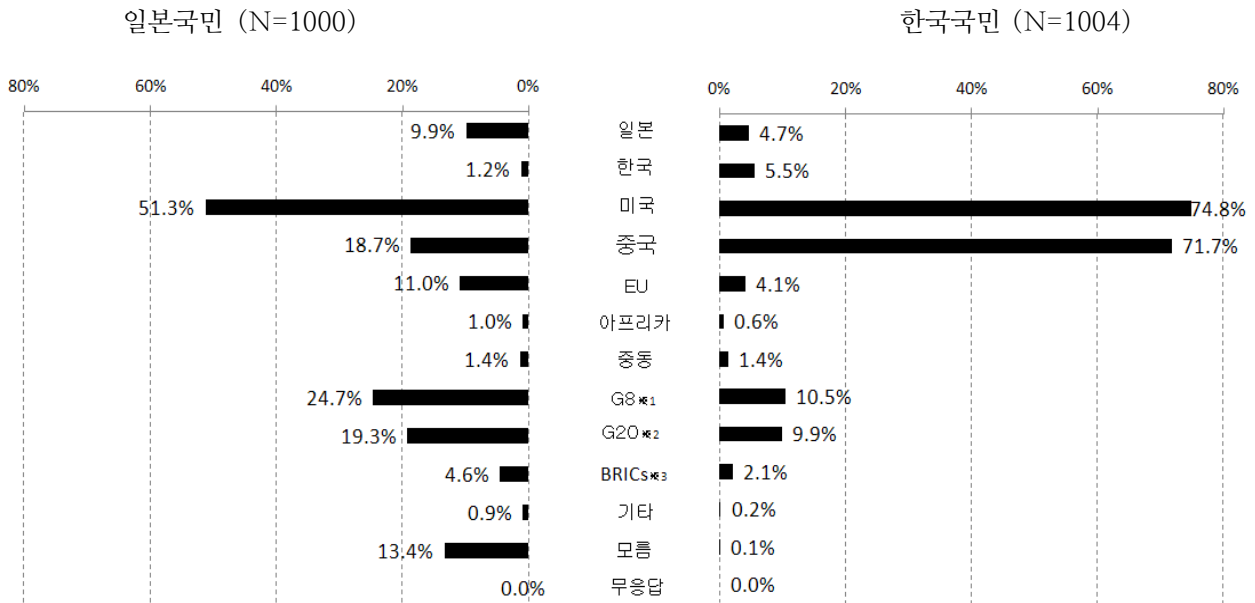
'앞으로 세계정치를 주도할 국가나 지역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 국민의 74.8%, 일본 국민의 51.3%가 '미국'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 국민의 경우 세계를 주도할 국가로써 '미국'과 함께 '중국'을 꼽는 비율이 71.7%로 상당히 높았다. 한국 국민은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국가는 '미국' 및 '중국' 2개국 (G2)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국민들은 미국 다음으로 'G8'이 24.7%, 'G20'가 19.3%이었으며 '중국'은 18.7%로 응답자 수가 적었다.

또한 세계정치를 주도하는 국가로써 상대국(한국/일본)을 선택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일본을 선택한 한국 국민의 비율은 불과 4.7%였으며 한국을 선택한 일본 국민의 비율 역시 불과 1.2%였다. 또 자국을 선택한 이들도 한국 국민이 5.5%, 일본 국민이 9.9%로 10%대에 미치지 못했다. 양국 모두 자국 또는 상대국이 앞으로

국제사회를 주도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0 앞으로의 세계정치를 주도할 국가나 지역】



*1 G8이란[일본,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8개국을 지칭
 *2 G20이란 G8의 8개국에 중국,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EU(유럽연합)을 더한 20개국 및 지역
 *3 BRICS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5개국을 지칭

7 - 2 . 2030 년 상대국의 영향력 전망

한국 국민의 경우 2030 년의 일본을 '세계 제 3 위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고 본 이들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일본 국민은 2030 년의 한국에 대하여 '잘 모름'이라고 대답한 이들이 32.8%로 가장 많았으나 '중견국이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보는 이들도 21.3% 정도 있었다.

이어서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에게 ‘2030년 상대국의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물었다. 한국 국민은 2030년의 일본을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고 보는 이들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중견국이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29.6%)가 뒤따랐다. 한국 유식자의 경우, 2030년의 일본을 ‘중견국이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 (36.4%)와 ‘중견국이지만 영향력이 없는 국가’(30.5%)가 가장 많았으며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는 21.6%로 관점이 분산되어 있었다.

한편 일본 국민의 경우 2030년 한국의 영향력에 대해 ‘잘 모름’이라고 대답한 이들의 비율이 32.8%로 가장 높았으며 장래 한국의 영향력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고 응답한 이들이 1/3을 점했다. 이어서 ‘중견국이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21.3%), ‘소국이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14.9%)로 한국을 중견국으로 보는 견해도 많았다. 일본 유식자는 2030년의 한국을 ‘중견국이지만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 국가’로 보았으며 응답비율 역시 34.8%로 가장 높았다.

7 - 3 . 양국의 경제관계

한일 경제관계에 대하여 한국 국민은 일본의 경제발전을 ‘위협’으로 본 반면 일본 국민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일본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상대국의 경제발전이 자국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일 간 경제관계에 대하여 한국 국민의 경우 ‘한국에게 있어서 일본의 경제발전은

위협이다’(‘대체로’를 포함)고 본 관점이 절반(47.6%) 가까이 있었으며 ‘중요성’(31.6%)보다도 ‘위협’을 고려한 관점이 더 많았다.

이와 반대로 ‘일본에게 있어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중요하다’고 본 일본 국민의 비율은 45.0%(‘대체로’도 포함)로 절반 가까이가 한일 경제는 윈-윈 솔루션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7 - 4 . 아시아는 하나의 통합경제권이 될 것인가

아시아가 장래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양국 국민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본 이들이 40%대를 넘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 비해 장래의 경제통합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아시아는 장래에 EU와 같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 국민의 41.7%, 일본 국민의 52.8% 비율로 아시아는 장래에 하나의 경제권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국민 중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21.4%이었던 반면, 일본 국민은 불과 4.8% 비율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함으로써 경제통합에 대해 한국 국민보다 더욱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 5 . 10 년 후의 한반도 전망

양국 국민 모두 10년 후의 한반도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고 답해 예측이 어렵다고 보는 관점이 약 40%대를 상회하였다. 한국에서는 '남북통일의 조짐이 보일 것이다'고 한 견해가 20%대였으며 다른 비관적인 관점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일본에서는 10년 후의 한반도는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혹은 오히려 '대립이 심각해질 것이다'는 관점이 총 40%대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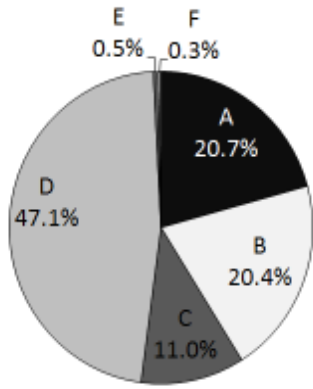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양국 국민에게 10년 후의 한반도 정세는 어떨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우선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39.8%가 '예측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남북통일의 조짐이 있을 것이다'가 22.9%로 낙관적인 견해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21.7%), '북한과의 대립이 심각해질 것이다'(15.4%)를 상회하였다.

일본 국민은 '예측할 수 없다'가 47.1%로 절반가량을 점하였고 위에서 제시한 '2030년 한국의 영향력'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장래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20.7%), '북한과의 대립이 심각해질 것이다'(20.4%) 등 비관적인 견해가 강했으며 '남북통일의 조짐이 있을 것이다'는 낙관적인 관점은 11.0%로 낮았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유식자들은 '남북통일의 조짐이 보일 것이다'고 답한 비율이 52.9%로 절반을 넘었으며 일본의 유식자들의 응답비율은 31.3%로 다른 보기들의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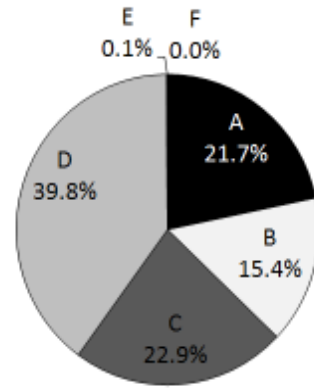
【표 21 10년 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일본국민 (N=1000)



- A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
- B 북한과의 대립이 심각해 질 것이다
- C 남북통일의 조짐이 있을 것이다
- D 예상할 수 없다
- E 기다
- F 무응답

한국국민 (N=1004)



8 . 영토분쟁과 동아시아의 군사·안보

한일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양국국민의 서로에 대한 감정을 악화시키는 독도(다케시마)문제와 함께 북한 핵 미사일 문제 및 중국의 군사증강과 이에 따른 주변국과의 마찰에 의한 긴장이 고취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군사와 안보에 대해 질문하였다.

8 - 1 . 한일 간 영토분쟁에 관하여

한국 국민의 80%대 그리고 일본 국민의 70%대가 한일 간에 영토분쟁이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써 한국에서는 '실효지배의 강화'가 40% 가까이 나타났으며 '군사적 대응도 불사해야한다'는 관점도 20%가까이 나왔고 일본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기소'가 60% 차지했다. 이에 덧붙여 한국에서도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관점이 30% 가까이 있었으며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기소에 응해야한다는 응답도 15.1%로 나타났다.

한일 간에 영토분쟁이 존재하는가

작년 말부터 독도(다케시마)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간 대립이 더욱 심각해졌으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82.7%, 일본 국민의 69.2%가 양국 간에 영토분쟁이 존재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서로 일치하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 22 한일 간 영토분쟁이 존재하는가】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04)



영토분쟁의 해결방법이란

이어서 ‘영토분쟁이 존재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가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한국과 일본의 인식 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국민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실효지배를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이 37.7%의 비율로 가장 많았으며 ‘군사적인 대응도 불사해야한다’는 비율은 20.4%였다. 반대로 일본에서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결과는 ‘국제법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한다’의 응답비율이 60.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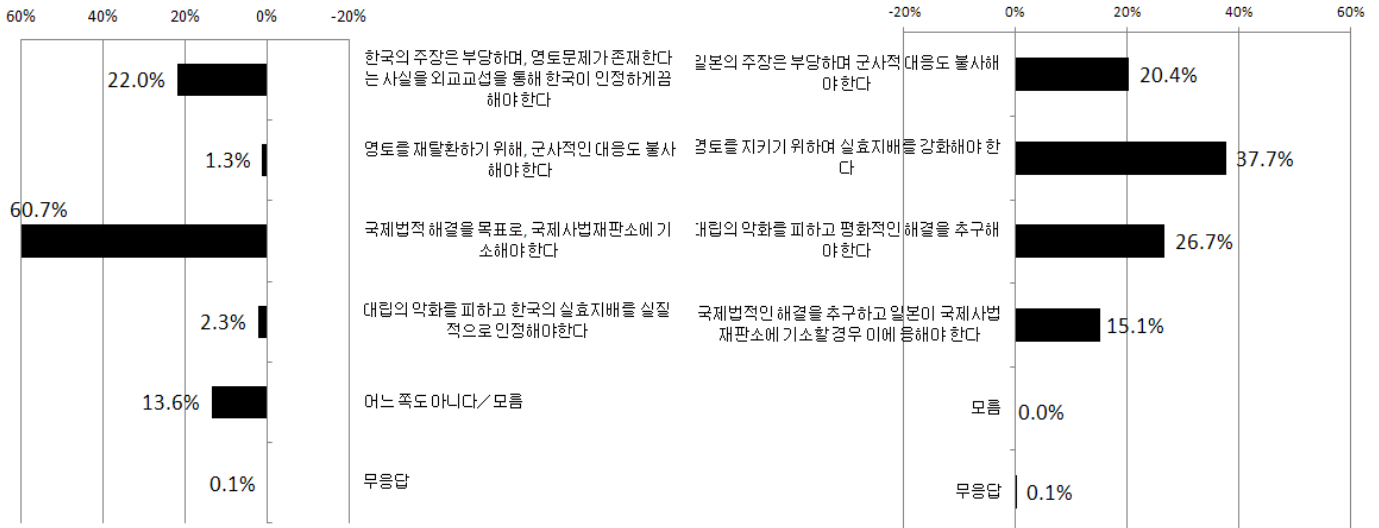
물론 한국에서도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관점이 적지 않았다. ‘대립의 격화를 피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한다’가 26.7%,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기소에 응한다’도 15.1%로 조사되었다.

한국 유식자도 ‘실효지배의 강화’를 약 60% 비율로(57.6%) 해결방안으로 보았다.

【표 23 영토분쟁의 해결방법】

일본국민 (N=692)

한국국민 (N=830)



8 - 2 . 군사적 위협과 동아시아 군사분쟁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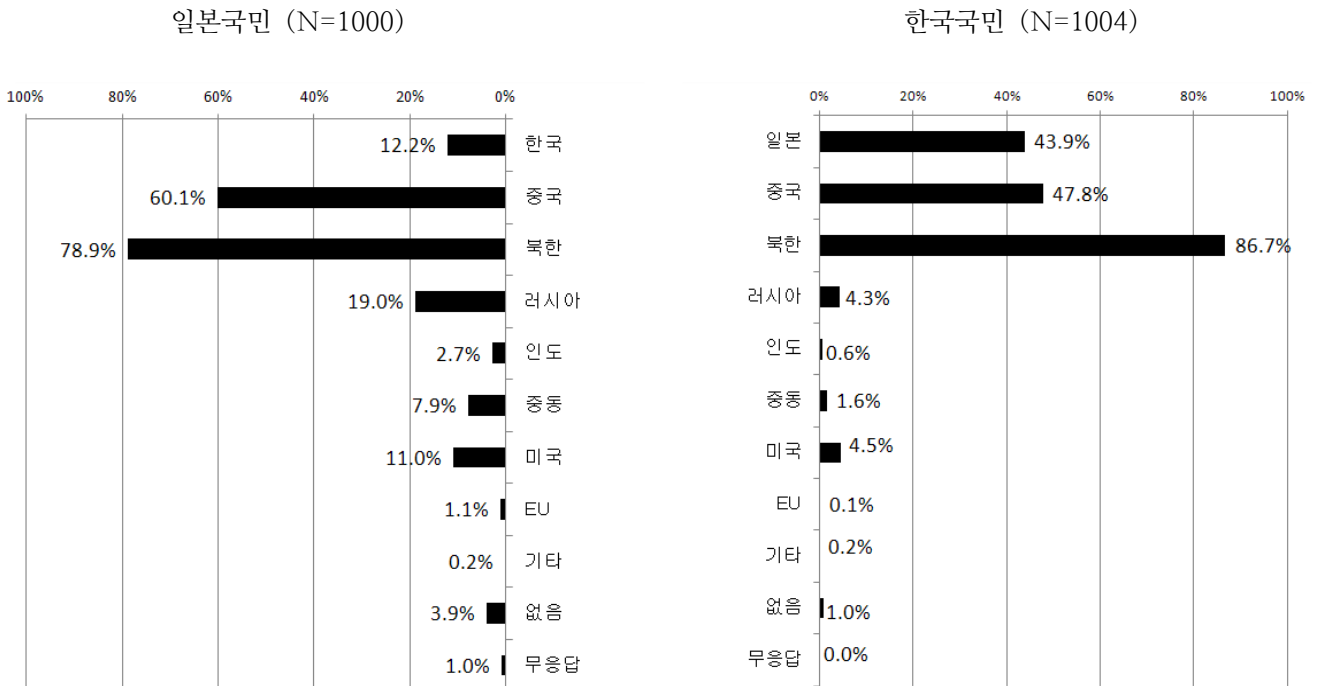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 국민 모두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한국 국민의 40%가 '일본'을 북한과 중국에 이은 위협 대상으로 보았다. 일본 국민은 북한에 이어서 '중국'에 대해서도 약 60%가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의 중일간 군사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 국민의 약 70%가 수년 이내 혹은 장래에 '일어날 것이다'고 응답하였다. 일본은 약 40%가 군사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과 일본 국민이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와 지역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모두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는 ‘북한’이었으며 각각 80% 내외(78.9%、86.7%)의 응답비율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국민의 경우 ‘북한’에 이어 ‘중국’을 위협으로 본 인식이 많았으며 60.1%로 60%대 내외를 나타냈다. 한국도 ‘중국’을 북한에 이어 위협으로 보는 정도가 47.8%로 절반 가까이 있었으나 이와 비슷한 비율인 43.9%가 ‘일본’도 위협으로 보았다. 한국을 위협이라고 보는 일본 국민은 약 10%대 (12.2%)에 미치지 않았으나 한국 국민의 경우 일본도 중국에 필적하는 군사적 위협을 띄고 있다고 보았다.

【표 24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지역】



동아시아에서 군사분쟁이 일어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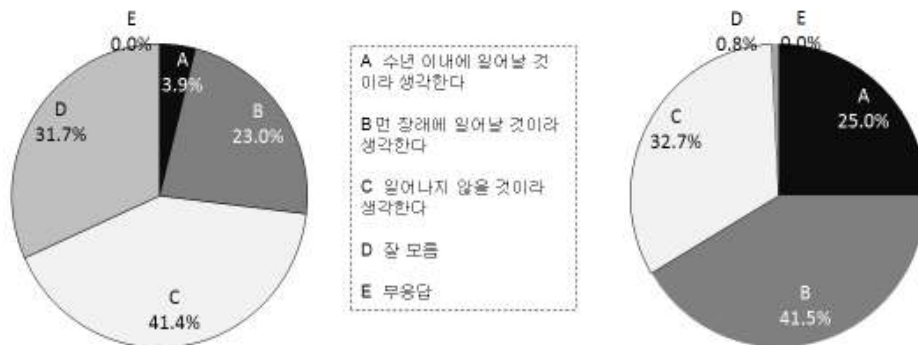
동아시아의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최근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에게 동아시아 해양을 두고 중일 간 군사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우선 한국 국민의 경우 ‘수년 이내에 일어날 것이다’ 혹은 ‘장래에 일어날 것이다’는 응답비율이 66.5%에 달했음에 반해 일본 국민의 응답비율은 26.9%에 불과하였으며 중국과 일본 간 군사분쟁의 발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관점이 많았다. 일본의 경우 ‘일어날 것이다’는 응답(26.9%) 보다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41.4%)는 인식이 더 강했으며 중일 간 군사분쟁의 가능성에 대해 보다 냉정한 의견이 많았다.

【표 25 동아시아 해양에서 군사분쟁이 발발할 가능성】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04)



9. 자국의 언론보도·인터넷 여론

한일 양국 국민 모두 상대국에 대한 인식의 형성이나 정보의 입수를 하는데 있어서 자국의 언론매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는 자국의 언론보도와 인터넷 상의 여론에 관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9 - 1 . 한일 언론보도 및 언론의 자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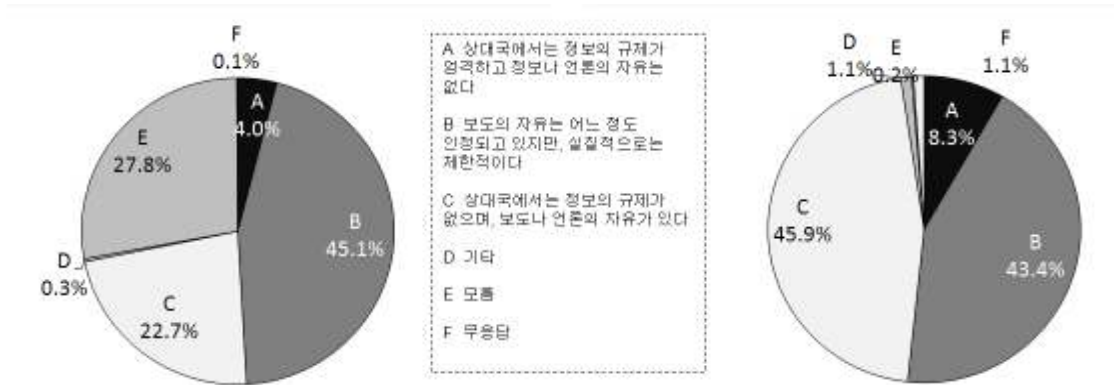
한일 양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 상대국의 보도나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자유가 없다' 혹은 '실질적으로 제제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의 보도나 언론에 관하여 '자유가 있다'고 보는 관점도 40%대에 달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점이 나뉘어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보도·언론에 대한 평가도 함께 알아보았다. 일본 국민의 49.1%는 한국의 '보도나 언론의 자유는 없다' 혹은 '실질적으로 제제되어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국민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일본의 '보도나 언론의 자유는 없다' 혹은 '실질적으로 제제되어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7%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의 경우 일본의 '정보의 제제가 없으며 보도나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비율도 45.9%에 달함에 따라 의견이 분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상대국은 보도·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04)



9 - 2 . 자국 언론보도는 객관적이고 공평한가

한국 국민의 40%가 한국 언론에 대해 한일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평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일본 국민들 역시 일본 언론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보도를 하고있다'고 보는 응답비율이 30%대에 그쳤다.

이어서 자국의 언론이 한일관계를 보도할 때 '객관적이고 공평한 보도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한국 국민의 비율은 33.0% 그리고 일본 국민의 비율은 31.3%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 1/3 정도에 그쳤다. 이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국 미디어의 한일관계 보도의 객관성과 공평성에 의문을 던진 한국 국민의 비율은 41.6% 그리고 일본 국민의 비율은 26.2%로 40%대를

상회하였다. 또한 양국 유식자 조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인식조사에서보다 높았으며 실제 한국 유식자의 경우 56.5%, 일본 유식자의 경우 51.7%로 절반 이상이 자국 언론이 객관적이거나 공평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7 한일관계 보도에 관한 자국 언론 보도는 객관적이고 공평한가】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04)



9 - 3 . 인터넷상의 여론은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는가

일본에서는 인터넷 상의 여론이 국민여론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불과 10%도 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및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각각 40%로 나타나 의견의 분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 국민이 상대국을 알기 위한 도구로써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고 한일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인터넷과 관련하여 인터넷 상의 여론이 과연 양국 국민의 여론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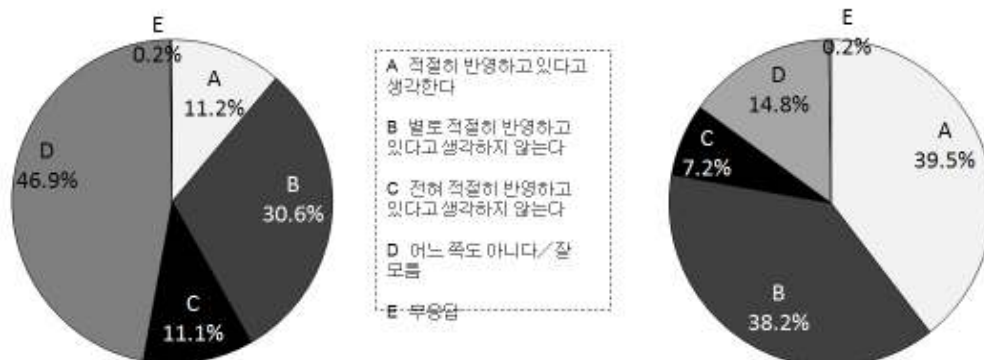
우선 한국 국민의 약 40%인 39.5%가 ‘국민여론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한국 국민 (‘별로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다’와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다’의 합계)의 비율은 45.4%로 나타났다. 한국의 여론이 인터넷 상의 의견에 대해 국민여론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한편 일본 국민들에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비율이 (‘별로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다’와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다’의 합계) 약 41.7%로 40%대를 상회하였으며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1.2%로 불과 10% 내외에 그쳤다. 하지만 ‘어느 쪽도 아니다 또는 모름’의 비율이 46.9%로 절반 가까이로 나타났다.

【표 28 인터넷 여론은 국민여론을 반영하는가】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04)



☒